

去腐生肌에 대한 考察

성은진¹⁾ · 김환영¹⁾ · 최병선²⁾ · 이호섭³⁾ · 유현주⁴⁾ · 박선규⁵⁾ · 최재환⁵⁾ · 이윤경⁵⁾ · 조은희²⁾ · 박민철¹⁾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 교실, ²⁾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교실

³⁾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⁴⁾원광보건대 미용피부관리과 교실

⁵⁾LG 생활건강 후. 한방피부과학 연구소

A study on 'Keo-Bu-Saeng-Gi'

Eun-Jin Seong · Hwan-Yeong Kim · Byeong-Seon Choi · Eun-Hee Jo · Min-Cheol Park

Background and Objective : Keo-Bu-Saeng-Gi(去腐生肌) is the word meaning wound healing process of the skin disease. This study introduces the theory of Keo-Bu-Saeng-Gi that can be used for not only skin disease but also for rejuvenation, beauty care.

Methods : We searched oriental literatures and reports related with Keo-Bu-Saeng-Gi(去腐生肌).

Result and Conclusions : Many oriental literatures referred to Keo-Bu-Saeng-Gi(去腐生肌) as a wound healing mechanism of the skin disease. Wound healing is very important for skin disease and rejuvenation. We can use this theory of Keo-Bu-Saeng-Gi(去腐生肌) for skin care.

Key words : Skin rejuvenation, repair, Keo-Bu-Saeng-Gi(去腐生肌)

Ⅰ. 緒 論

현대 피부 미용 분야에서는 줄기세포나 성장인자를 이용하여 항노화, 재생을 테마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한 임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의학적 피부 미용 치료에 있어서도 이러한 항노화, 재생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

古書에 나오는 피부질환의 치료에 대한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癰疽나 瘡瘍같은 질환 중심으로 서술되어 피부미용분야에 적용하기에 난해한 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한의학의 古書에 나오는 피부질환의 치료에 대한 용어 중 재생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를 찾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여 현대 피부 질환의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去腐生肌’란 ‘썩은 살을 제거하고 새살을 생기게 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이는 托癰生肌와 유사하게 外科서적에서 瘡瘍을 치료할 때 쓰인 한의학적인

교신저자 : 박민철,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과
(Tel : 063-859-2821, E-mail : spinx11@wonkwang.ac.kr)
• 접수 2009/11/07 • 수정 2009/11/25 • 채택 2009/12/05

의학용어이다.

瘡瘍의 발생에 대해 《靈樞癰疽》편에서는 寒氣가 經絡에 침범하여 血凝이 되어 衛氣가 순환되지 않아 腫이 발생되며 寒氣가 熱로 변하여 熱이 많으면 肉이 腐蝕되어 膿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劉何問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가들은 火와 熱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하였다. 서양의학에서는 염증유발성 자극으로 발생되며 조직, 혈관 및 결합조직계의 손상으로 순환장애와 퇴행성 및 진행성 병변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라 하였다. 손상 받은 조직의 치유과정은 손상 직후 즉시 시작하여 손상받은 조직을 건강한 다른 세포들이 대체하여 收復하는 wound healing의 과정을 거친다.

瘡瘍의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初期, 成膿, 潰後의 3단계로 분류하는데 치료법칙도 이에 따라서 消托補의 3가지 기본법칙으로 분류된다. 이 중 消法은 消散하는 작용이 있는 약물로 병변의 손상을 膿이 없는 상태에서 消散시키며, 托法은 透膿法과 補托法으로 나뉘어 병변을 化膿시키거나 消退시키도록 하며, 補法은 損을 益하고 虛를 보하여 瘡瘍의 後期에 사용 한다¹⁾.

‘去腐生肌’는 한의학에서 이러한 瘡瘍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消托補의 3가지 원칙이 내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병리적 조직인 瘡瘍은 현대적으로 염증성 조직일 뿐 아니라 노화된 피부병변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去腐生肌이론은 피부치료에 있어 기존 조직을 대체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하는 치료로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현대 피부미용 분야에서 주류로 삼고 있는 항노화, 재생의 개념을 한의학적 용어인 去腐生肌로 접근하여, 주름개선이나 탄력회복, 상처 회복, 아토피나 건선의 치료, 火傷의 치료 등 피부질환의 재생치료에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去腐生肌’중 ‘生肌’에 대한 연구는 安²⁾의 四君子湯加黃芪煎湯液의 生肌작용, 辛³⁾의 十全大補湯의

生肌작용, 姜⁴⁾의 托裏黃芪湯의 조직재생, 金⁵⁾의 加味生肌紅玉膏의 生肌작용에 대한 연구, 신⁶⁾과 한⁷⁾의 유백피의 조직재생에 대한 실험적 연구, 남⁸⁾의 TDP조사와 沒藥의 도포에 의한 화상 피부의 재생효과, 고⁹⁾의 化氣調經湯의 피부 세포 재생효과 등과 같이 실험적인 연구는 행해졌으나, 去腐生肌에 대한 한의학적 문헌 고찰은 별도로 없었기에 이에 대한 고찰을 하여 보기로 했다.

II. 本 論

총 28개의 한의학 古書 중에서 去腐生肌, 去腐, 生肌를 key word로 검색하여 문헌을 고찰해 보았다.

1. 去腐生肌에 대한 한의학적 문헌 고찰

‘去腐生肌’에 대한 언급은 28개 문헌에서 총 4회였으며, ‘去腐’의 표현은 총 19회, ‘生肌’의 표현은 총 248회였다(Table 1).

2. 去腐에 대한 한의학적 문헌 고찰

去腐에 대한 28개 한의학 서적의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이를 더 자세히 보면 한약처방의 효능으로서 제시된 것이 主를 이루고, 이론적인 언급이 副가 됨을 알 수 있다. 去腐의 효능이 있는 한약처방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1. Reference of the Word ‘去腐生肌’, ‘去腐’, ‘生肌’

literature	the date of issue	去腐	生肌	去腐生肌
素門		0	0	0
靈樞		0	0	0
難經		0	0	0
金匱要略		0	0	0
丹溪心法		0	0	0
神農本草經		0	0	0
類經		0	0	0
脈訣		0	0	0
察病指南		0	0	0
脾胃論		0	0	0
格致餘論		0	0	0
醫林改錯		0	0	0
儒門事親	1224~1231	0	11	0
外科精要	1263	0	17	0
外科精義	1335	0	13	0
丹溪心法	1481	0	2	0
醫學正傳	1515	0	2	0
外科理例	1531	0	17	0
醫學綱目	1565	0	2	0
外科啟玄	1604	0	29	0
東醫寶鑑	1613	6	54	0
外科正宗	1617	0	2	0
壽世保元	17C초	1	24	0
外科大成	1665	10	48	4
醫方集解	1682	1	4	0
石室秘錄	1687	0	13	0
張氏醫通	1695	0	10	0
醫學心悟	1732	1	0	0
total sum		19	248	4

위 Table 3의 한약처방에 쓰인 구성 약물을 보면 人蔘, 黃芪, 白芍藥, 當歸, 白朮, 白茯苓, 陳皮, 連翹, 金銀花, 白芷, 甘草, 桑柴灰, 穿山甲, 杏仁, 生地黃, 司香, 炒石, 馬齒莧, 水銀, 火硝, 枯礬, 白礞, 礞砂, 漏蘆, 白芨, 巴豆가 각각 1례씩 사용되었고, 輕粉, 朱砂, 食鹽, 雄黃은 각각 2례씩 사용되었다.

그 외로 ‘去腐’의 표현은 ‘膿盡則去腐’라는 표현으로 2차례 언급되었는데 이는 염증성 조직이 다 제거되면서 腐蝕된 조직도 消散된다는 뜻이다. 《東醫寶鑑》에서 ‘肌肉不生由於腐肉不去’라는 표현도 1차례 언급되는데, 이는 조직이 잘 재생되지 않는 것은 병리적 산물인 腐肉이 제거되지 않아 새로운 조직이 잘 재생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3. 生肌에 대한 한의학적 문헌 고찰

‘生肌’에 대한 28개 한의학 서적의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Table 4).

Table 3.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去腐’

literature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去腐’
東醫寶鑑	托裏消毒飲, 金寶膏, 川椒煎湯, 韭菜根陳艾煎濃汁
外科大成	馬齒莧膏, 去腐類方, 貴金丸, 玄精湯, 貴金丸
醫方集解	獨聖散
醫學心悟	巴豆去殼, 新瓦上炒黑

Table 2. Reference of the Word ‘去腐’

literature	sum of reference	efficacy of the medicine	膿盡則去腐	肌肉不生由於腐肉不去	etc
東醫寶鑑	6	4	1	1	
壽世保元	1				1
外科大成	10	5	1		4
醫方集解	1	1			
醫學心悟	1	1			
total sum	19	11	2	1	5

Table 4. Reference of the Word '生肌'

literature	sum of reference	生肌散	生肌膏	efficacy of the other medicine	efficacy of the other herb	etc
儒門事親	11	7		2		2
外科精要	17	5	1			11
外科精義	13	1		9	1	
丹溪心法	2				1	1
醫學正傳	2			2		
外科理例	17			5	2	10
醫學綱目	2			2		
外科啟玄	29	6	1	14	3	5
東醫寶鑑	54	13	2	24	7	8
外科正宗	2			1		1
壽世保元	24	2		14	7	1
外科大成	48	12	2	19		15
醫方集解	4	3		1		
石室秘錄	13	6		1		6
張氏醫通	10	5				5
total sum	248	60	6	94	21	65

Table 5. Various Component Groups of '生肌散'

literature	various component groups of '生肌散'
儒門事親	黃連(三錢), 蜜陀僧(半兩, 乾胭脂(二錢), 雄黃(一錢, 菉豆粉(二錢), 輕粉(一錢)
外科精要	木香, 檳榔, 黃連(各等分)
外科啟玄	輕粉, 乳香, 沒藥(各一錢), 黃丹(二錢微炒), 赤石脂(五錢), 寒水石(三錢)
東醫寶鑑	寒水石. 滑石. 龍骨(無則狗頭骨代之).烏賊魚骨 各一兩 定粉, 密陀僧, 白礬灰, 乾胭脂 各 五錢. 右爲極細末 糝之(精要)
	寒水石, 煨滑石 各一兩. 烏賊骨, 龍骨 各五錢. 密陀僧, 枯白礬, 乾胭脂, 定粉 各二錢半 (精義)
壽世保元	五倍子(炒黃色三兩), 乳香, 沒藥, 孩兒茶(各一錢), 白礬(五分)
外科大成	人參, 龍骨, 赤石脂, 乳香, 沒藥, 血竭, 輕粉(各二錢), 貝母(三錢), 珍珠(一錢), 冰片(一錢), 一加白蠟(二錢)
	盤雞(一個 存性每用一錢) 血竭 兒茶(各五分) 冰片(一分)
	爐甘石(一兩 三黃湯內七次) 木香 降香 乳香 沒藥 血竭 兒茶 黃柏 黃連 白芷 白礬(各五錢)龍骨(三錢) 冰片(一錢) 麝香(三分) 赤石脂(一兩) 黃丹(一兩飛七次), 海螵蛸(湯泡去皮五錢)
醫方集解	寒水石, 滑石, 密陀僧, 海螵蛸, 定粉, 枯礬, 龍骨, 乾胭脂
	檳榔, 枯礬, 陀僧, 黃丹, 血竭, 輕粉
	黃連, 密陀僧, 胭脂, 菉豆粉, 雄黃, 輕粉
石室秘錄	人參一錢, 三七根末三錢, 輕粉五分, 麒麟血竭三錢, 象皮一錢, 乳香去油一錢, 沒藥一錢, 千年鍛石三錢, 廣木香末一錢, 冰片三分, 兒茶二錢
張氏醫通	乳香, 沒藥(各一兩, 海螵蛸(水煮五錢), 黃丹(炒飛四錢), 赤石脂(淨七錢), 龍骨(淨四錢), 血竭(三錢), 熊膽(四錢), 輕粉(五錢), 冰片(一錢), 麝香(八分), 珍珠(二錢.另研)
	黃連 黃柏 甘草 五倍子 地骨皮(等分)

이를 살펴보면 生肌散에 대한 언급이 총 60회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生肌膏는 처방명만 언급될 뿐 약물구성이 나와 있는 문헌은 없었다. 生肌散외에도 많은 처방과 단미제제가 生肌의 효능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기타로는 肌肉을 생하게 한다는 뜻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각 문헌에 실린 生肌散은 동일처방이 아니라 문헌마다 그 약물 구성이 다른 별개의 처방이었기에 각 문헌마다 실린 生肌散의 약물 구성을 나타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위의 生肌散은 각 처방마다 약물구성이 다르다. 각기 다른 生肌散의 구성약물 중에는 輕粉이 총 7회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沒藥이 6회, 黃連, 蜜陀僧, 乳香, 龍骨, 血竭, 白礬이 총 5회, 雄黃, 黃丹, 冰片이 총 4회, 赤石脂, 寒水石, 定粉, 孩兒茶이 총 3회, 胭脂, 檳榔, 木香, 滑石, 臙脂, 烏賊魚骨, 海蝶硝, 人蔘이 총 2회, 五倍子, 貝母, 珍珠, 白蠟,

盤雞, 爐甘石, 降香, 黃柏, 白芷, 白蘞, 麝香, 菘豆, 三七根이 총 1회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한약처방들이 生肌의 효능을 가진 처방으로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生肌散, 生肌膏를 제외하고 生肌의 효능이 있다고 제시된 처방명은 총 91개(3개는 중복됨)로 그 처방명은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제시된 한약처방의 약물 구성을 살펴보면 乳香이 총21회로 가장 많았고, 沒藥, 當歸, 輕粉, 血竭, 黃丹, 甘草, 大黃, 白礬, 黃連, 白芷, 龍骨, 冰片, 朱砂 등의 순서로 약물이 사용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生肌”의 효능이 있는 한약 처방을 알아 보았다. 각 문헌에서 단미제제 역시 生肌에 효능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7와 같다.

Table 6.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生肌" Except "生肌散"

literature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生肌" Except "生肌散"
儒門事親	三黃丸, 白斂, 定粉(各等分), 黃丹(少許)
外科精要	十全大補 加 薑桂, 神異膏, 家藏神驗血竭膏, 牡蠣地黃膏, 綠雲散, 托裡散, 神效酒煎散升麻湯, 至聖膏, 四君子加芍藥木香,
外科精義	白龍散, 桃紅散, 金黃散, 消毒散, 翠霞散, 白龍膏, 金傷散, 沒藥膏, 大蛾散
醫學正傳	和血益氣湯, 三黃丸
外科理例	二神丸, 大鯽魚一枚去腸臟. 以羯 羊糞填實.
醫學綱目	化蟲丸, 生肌青龍散
外科啟玄	洪寶膏, 十宣散, 紫金鑷痛散, 萬金丹, 杖瘡膏藥方, 棒瘡膏, 貼痔乳香膏藥方, 枯痔藥方, 黃蠟拈, 補漏藥方, 喚腸散, 醋灰膏, 火燒瘡方
東醫寶鑑	金傷散, 十宣散, 參苓元, 九仙王道糕, 六味地黃元, 芎歸托裏散, 加味十全湯, 飲醇酒食肥肉白, 巴豆膏, 豬蹄湯, 解毒湯, 洗毒湯, 乾艾湯, 桃花散, 紅玉散, 返魂追命再造散, 龍骨牡蠣人齒犬牙加血竭乳麝髮灰, 平肌散, 人牙散, 內生肌丸, 翠霞散, 黃蠟膏, 白膠香老松皮白芷血竭. 黃丹滑石未付之夏月以薄荷葉貼之黃丹白礬
外科正宗	調中大成湯
壽世保元	參苓白朮丸, 白朮膏, 加味蠟礬丸, 斂瘡止痛生肌散, 二合消毒散, 合口收功散, 如聖丹, 黃白散, 神秘萬金膏, 當歸膏, 止血定痛生肌散, 通裏湯, 一擦金
外科大成	絳珠膏, 生化湯, 生肌定痛散, 定痛生肌散, 生肌類方, 琥珀蠟礬丸, 生肌藥丁, 珍珠散, 退管藥線類方, 癢疔發癢洗方, 十全大補湯, 乳香法紙, 牛黃生肌散, 瑩珠膏, 麥飯石膏, 斂瘡方, 紫砂生肌散
醫方集解	托裏黃耆湯
石室秘錄	黃犬屎, 露天久者變成白色, 用炭火 過為末, 再用鍛石敷. 陳年者, 炒, 各等分, 以麻油調之(처방이름은 없음)

Table 7. Effective Herbs on "生肌"

literature	effective herbs on "生肌"
外科精義	白石脂
丹溪心法	白蠟
外科理例	白蠟, 龍竭
外科啟玄	白芷
東醫寶鑑	白芷, 赤芍, 甘草, 白膠香老松皮白芷血竭. 黃丹滑石未付之夏月以薄荷葉貼之. 黃丹, 白礬, 蛻螂, 血竭, 琥珀, 青蒿, 白蠟
壽世保元	黃芪, 鬱金, 漏蘆, 無名異, 赤石脂, 砂, 乳香

이 외에 生肌에 대한 언급은 膿血未盡時 誤用하면 瘡口가 수렴되지 않으므로 生肌제제를 너무 미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이 총 20례, 成膿潰腐하고자 하면 生肌收斂하라는 언급이 총 4례, '大熱則生肌'라는 언급이 총 2례, 元氣가 손상되면 生肌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총 3례, 消中(소갈병, 食亦)에는 肌肉이 생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총 5례였다.

4. 去腐生肌에 대한 한의학적 문헌 고찰

'去腐生肌'에 대한 28개 한의학 서적의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Table 8).

Table 8. Referance of the Word '去腐生肌'

literature	sum of referance	efficacy of the medicine	etc
外科大成	4	3	1

去腐生肌의 효능이 있는 한약처방으로 제시된 것은 絳珠膏, 瑩珠膏, 貝葉膏 총 3개였다. 이 3개의 처방 약물 구성을 분석하여 횟수를 누적해보면 雞子黃, 血餘, 天麻子肉, 黃丹, 乳香, 沒藥, 珍珠, 血竭, 茶, 朱砂, 麝香, 豬脂油, 甘草, 苦參은 각각 1회, 冰片, 麻油, 輕粉은 2회, 蜜蠟은 총 3회가 사

용되고 있었다.

5. '去腐', '生肌', '去腐生肌'에 효능이 있다고 제시된 약물의 누적 통계

지금까지 去腐生肌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해보았다. '去腐', '生肌', '去腐生肌'에 효능이 있다고 제시된 한약 처방의 한약구성물과 단미제제들에 대해 누적 통계를 내어 보면 다음의 Table 9와 같다. 乳香, 輕粉, 沒藥, 血竭, 黃丹, 白礬, 當歸, 龍骨, 冰片등의 순으로 多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考察 및 結論

지금까지 문헌을 고찰하여 본 결과, '去腐生肌'는 瘡瘍의 치료 원칙으로 응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처방의 효능으로서 언급되고 있었다. 처방으로는 生肌散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다양한 처방들이 生肌의 효능을 가진 처방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瘡瘍을 염증성 병리조직으로만 본다면 이는 피부의 병리 상태만을 제거하고 재생시키는 치료에 속하지만, 이를 노화된 조직으로 본다면 피부 재생 치료에 응용이 가능하다.

生肌散의 주약물이나 去腐生肌에 효과가 있다고 문헌에 제시된 약물들(Table 9)은 실험적으로나 임상적으로도 염증개선, 피부조직의 재생이나 미백에 효과가 있어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Table 10).

'去腐生肌'는 노화나 병리적 변화에 따른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치료법으로서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현대적으로 볼 때 瘡瘍의 범주뿐만 아니라 현대 피부 미용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한 원리라 할 수 있다(Figure 1).

Table 9. Herbs Composing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去腐", "生肌", "去腐生肌"

herbs composing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去腐", "生肌", "去腐生肌"	sum
乳香	28
輕粉	23
沒藥	21
血竭	19
黃丹	17
白礬	16
當歸, 龍骨	15
冰片	14
黃連	13
甘草, 白芷	12
茶	11
朱砂	10
大黃, 雄黃	9
麻油, 麝香	8
黃柏, 人參, 芍藥	7
生薑, 皂角, 黃蠟, 白蠟, 白朮, 珍珠, 赤石脂, 蜜陀僧, 茯苓	6
川芎, 石膏, 黃芪, 白芨	5
臙脂, 桂, 琥珀, 陳皮, 滑石, 海螵蛸, 定粉, 寒水石, 蜜蠟	4
桔梗, 香油, 露蜂房, 苦參, 巴豆, 地黃, 礬砂, 檳榔, 木香	3
食鹽, 烏賊魚骨, 白蠟, 黃芩, 黃栝萸, 薏苡仁, 牛黃, 柳白皮, 松香, 遠志, 山藥, 五味子, 老狗頭骨, 亂髮, 官粉, 鷄內金, 杏仁, 無名異, 五倍子, 鬱金, 雞子黃, 血餘, 貝母, 白礬	2
連翹, 金銀花, 桑柴灰, 穿山甲, 炒石, 炒石, 馬齒莧, 水銀, 火硝, 漏蘆, 白蠟, 盤雞, 爐甘石, 降香, 菘豆, 三七根, 天麻子肉, 豬脂油, 老松皮, 薄荷葉, 蛻蜋, 白膠, 青蒿, 砂, 玄參, 蛇蛻, 木鱉子, 牡蠣, 鳳尾草, 忍冬草, 蘇木, 川升麻, 地榆, 牡丹皮, 白薇, 商陸根, 桑白皮, 杏仁油, 鶴虱,, 胡粉, 苦楝根, 訶子皮, 紫荊皮, 降真香, 骨碎補, 桃仁, 蒲黃, 牛膝, 朴硝, 赤礬, 金腳信, 蔥汁, 文蛤, 吳茱萸, 銅綠, 川烏, 活鮑魚, 青黛, 磁石, 草烏, 炭灰米醋, 石菖蒲, 地骨皮, 蓮肉, 麥芽, 白扁豆, 芡仁, 柿霜, 白砂糖, 烏藥, 人牙, 鹿角, 松脂, 藿香, 附子, 蓮肉, 半夏, 砂仁, 神麩, 香附, 棗, 全蠍, 天麻, 僵蠶, 蟬蛻, 防風, 荊芥, 羌活, 細辛, 枳殼, 芒硝, 麻黃, 大楓子, 梔子, 連翹, 獨活, 木鼈子, 牛膽, 蟹黃, 象牙, 花蕊石, 紫蘇, 綠礬, 麥飯石, 鹿角, 象皮, 麥門冬	1

Table 10. Study on the Herbs Composing Effective Herbal Medicine on "去腐", "生肌", "去腐生肌"

herb	efficacy of the herb
白礬(Alunitum)	녹농균성 부비동염에 항염증(抗炎症) 효과가 있다. ¹⁰⁾
當歸 (<i>Angelica gigas</i> Nakai)	미백 및 자외선 차단 효과, MMP-1 발현 저해 효과가 있었다. ¹¹⁾
茶(<i>Thea sinensis</i> L.)	항산화, 항노화, 암예방의 효과가 있었다. ¹²⁾
黃連(<i>Coptis chinensis</i>)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여 화장품으로 개발가치가 있었다. ¹³⁾
黃柏(<i>Phellodendron amurense</i>)	<i>S. aureus</i> , <i>B. subtilis</i> 및 <i>C. albicans</i> 에 대해서 抗菌效果를 보였다. ¹⁴⁾ 황백의 MeOH 추출물이 멜라닌 중합체 생합성에 억제 효과가 있다. ¹⁵⁾

Table 10. 계속

herb	efficacy of the herb
苦參 (Sophora flavescens)	S. aureus와 B. subtilis에 대하여 同時に 抗菌效果를 보였다. ¹⁶⁾ SOD 活性化에 있어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와 유사한 效果를 나타내었다. ¹⁷⁾
五倍子(Rhus ajvanica)	S. aureus, B. subtilis, E. coli, K. pneumonia, Ps. aeruginosa 등의 다섯가지 菌株들에 對해 抗菌效果를 보였다. ¹⁸⁾
皂角 (Gleditsia japonica)	조각자 saponin과 조각자 물추출물은 酵素活性 抑制效果와 抗炎症作用이 모두 強하게 나타났다. ¹⁹⁾
白薇 (Ampelopsis Radix)	DHHP 및 superoxide radical 소거 작용에 의한 항산화 효과와 MMP-1의 활성 저해 효과 및 UVA에 의한 human dermal fibroblasts에서 MMP-1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²⁰⁾
白朮(Attractylodes japonica)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²¹⁾
芍藥 (Paeonia albiflora pall)	작약 추출물 중 paeoniflorin은 항산화 효과와 콜라겐 합성 증가 효과가 있다. ²²⁾
黃芪(Astragalus membranaceus Root)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층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로 알려진 제니스테인과 유사한 자유라디칼 소거효과를 나타냈다 ²³⁾
白芷(Angelica dahurica Root)	콜라겐 생성 능력이 우수하였다. ²⁴⁾
白芨(Bletilla striata Reichb. Fil.)	BI6 흑색종세포의 tyrosinase 활성화와 tyrosinase protein 발현을 억제하여 멜라닌 형성을 억제시켰다. ²⁵⁾
血竭(Draconis Resina)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염증성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²⁶⁾
滑石(Talcum)	욕창의 환부에 활석을 도포하여 임상적으로 빠른 호전을 보였다. ²⁷⁾
鬱金(Curcuma longa)	울금 추출물의 항산화력이 월등히 우수하였다. ²⁸⁾
沒藥(Myrrha)	TDP조사와 병용시 상피 재생 및 치유에 큰 효과가 있었다. 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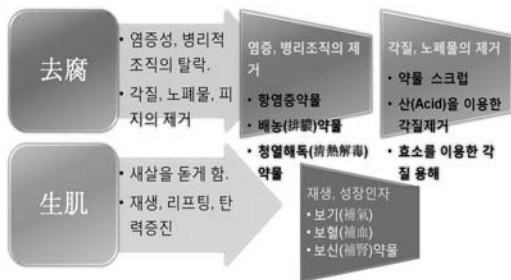


Fig. 1. The Theory of '去腐生肌' in Skin Care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去腐'의 대상을 단순히 腐蝕된 조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로 염증성, 병리적 조직, 노화된 병변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제거해야 할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抗炎, 排膿, 清熱解毒의

효능이 있는 한약물 등을 통해 병리 조직을 消散시키며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生肌'는 肌肉의 生長이나 瘡瘍에서 腐肉이 없어지고 新肉이 생기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는 것으로서 補氣, 補血, 補腎의 효능이 있는 한약물 등을 이용해 상처조직의 재생 뿐 아니라 노화된 조직의 재생, 섬유아세포 증식 효과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東醫寶鑑》에서 '肌肉不生由於腐肉不去'라는 표현이 나온다. 병리적 조직이 제거되지 않으면 새로운 조직의 재생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피부미용 치료에 응용되는 Alpha-hydroxy acid(AHA)와 Beta-hydroxy acid(BHA)의 원리와 상통된다고 할

수 있다. AHA, BHA는 각질을 탈락시킴으로써 새로운 각질세포와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세포 교체 주기를 가속화시킨다. 노화 피부나 건성 피부는 세포 교체 주기가 느려져 있고, 피부 장벽 기능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東醫寶鑑》에서 언급한 ‘肌肉不生由於腐肉不去’로 볼 수 있다. 腐肉을 없애주면 肌肉이 더 잘 재생될 수 있다. 즉, 노화피부나 아토피 등의 건성 피부에서 결합체 분해 단백질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덩어리진 각질들로 이루어진 거친 표피를 腐肉이라 보고, 이를 없애주면 새로운 육아조직의 재생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대 피부 미용 분야는 성장인자나 줄기세포, 태반 물질 등을 활용하여 '재생'을 테마로 한 치료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去腐生肌의 개념은 한의학적 재생의 개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 주름개선, 탄력 증진, 상처 회복, 아토피나 건선의 치료, 火傷의 치료 같은 현대적인 피부미용치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去腐生肌의 효능이 있다고 제시된 본문의 처방과 단미제제들은 피부 재생 물질로서 개발 가능성이 풍부하므로 실험과 임상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去腐生肌 외에도 다양한 한의학적 표현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피부질환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현대 피부 질환의 치료에 한의학적 개념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1. 김남욱, 노석선. 加味生肌紅玉膏가 生肌에 미치는 影響. 대한외관과학회지1999;12(2).
2. 안수현, 임규상, 이기남. 사군자탕, 사군자탕가 황기가 생기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부과학회 1989;2(1):17-32.
3. 신미향, 노석선, 김병탁. 십전대보탕이 생기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1977;14(1):31-44.
4. 강승원, 노석선. 탁리황기탕이 염증세포 및 조직재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부과학회지 1993;6(1):53-70.
5. 김남욱, 노석선. 加味生肌紅玉膏가 生肌에 미치는 影響. 대한외관과학회지1999;12(2).
6. 신연상, 이준성, 노석선. 유백피의 항염 및 조직재생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과과학회지 2001;14(1):190-208.
7. 한진근, 박수연, 김종한, 최정화. 유백피 추출물이 인간의 피부 세포 재생 및 악성 흑색종 세포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부과학회지 2007;20(3):82-97.
8. 남성우, 이복규, 조현국. 특정전자과 조사와 물약의 도포에 의한 화상 피부의 치유 촉진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03;18(4):263-268.
9. 고흥개, 박수연, 김종한, 최정화. 化氣調經湯이 피부 세포 재생 및 악성 흑색종 세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방안이비인후부과학회지 2007;20(3):14-28.
10. 박외숙, 김희정, 김규석, 차재훈, 김운범. 가토(家兔)의 녹농균성 부비동염에 대한 백반(白礬)의 항염증(抗炎症) 효과 2006;19(1):43-54.
11. 김철희, 권민철, 한재건, 나천수, 곽형근, 최근표, 박옥연, 이현용. 초고압 추출 공정에 의한 당귀 추출물의 미백 및 자외선 차단 효과 2008;16(4):255-260.
12. 김남이, 이진하, 허문영. 녹차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효과. 2006;14(6):322-328.
13. 이진태, 이창언, 김준홍, 손준호, 곽재훈, 이진

- 영, 박태순, 배호정, 장민정, 조철훈, 안봉진. 황련(黃連)의 생리활성검증 및 화장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 2005;20(3):83-92.
14. 장준복, 이경섭, 안병기. 隱戶病의 外用藥으로 應用되는 五倍子, 艾葉, 苦蓼, 蜀椒 및 黃柏의 抗菌과 消炎效果. 1993;14(2):270-280.
 15. 이종구, 최지영, 오준석, 정희옥, 최은향, 이희상, 김정아, 장태수, 손종근, 이승호. 황백(黃柏)으로부터 멜라닌 생합성 억제 물질의 분리. 한국생약학회 2007;38(4):387-393.
 16. 장준복, 이경섭, 안병기. 隱戶病의 外用藥으로 應用되는 五倍子, 艾葉, 苦蓼, 蜀椒 및 黃柏의 抗菌과 消炎效果. 1993;14(2):270-280.
 17. 박용기. 葛花와 鬱金 및 고삼의 抗酸化作用에 關한 比較研究 대한본초학회지 2001;16(1): 41-53.
 18. 장준복, 이경섭, 안병기. 隱戶病의 外用藥으로 應用되는 五倍子, 艾葉, 苦蓼, 蜀椒 및 黃柏의 抗菌과 消炎效果. 1993;14(2):270-280.
 19. 박용기, 강병수. 조각자의 消炎作用에 對한 實驗的 研究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995;4: 237-265.
 20. 조영호, 심관섭, 김진희, 박성민, 이범천, 표형배, 윤여표, 박흠대. 백렴 추출물의 Matrix Metalloproteinase-1 발현 저해 효과. 대한약학회지 2004;48(6):358-363.
 21. 정민환, 문철순, 임영희, 강상진, 조완구, 김청택. 백출의 멜라닌 생성 억제 물질. 한국생약학회지 2005;36(1):60-63.
 22. 김연수, 서기범, 윤지석, 장민열, 박선규, 이상화, 손상륜, 오정택, 김법민. 작약 추출물의 항주름 효과에 관한 연구 2004년 제56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122.
 23. 정택규, 김미진, 임경란, 윤경섭. 황기추출물의 보습 및 항산화 효과. 대한화장품학회지 2006;32(3,58):193-200.
 24. 정민환. 임영희, 이상화, 강상진, 조완구, 진무현. 백지의 콜라겐 생성 촉진 물질. 생약학회지 2004;35(4):315-319.
 25. 윤화정, 윤정원, 윤소원, 고우신, 우원홍. 백급이 멜라닌 형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00-111.
 26. 이효승, 허숙경, 윤현정, 최재우, 정재하, 박선동.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혈갈(血竭)(Draconis Resina)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대한본초학회 2008;23(2):179-192.
 27. 양미라, 최진영, 신학수, 정용준, 김관식, 서관수, 김동웅, 신선호, 조권일. 옥창(癬瘡)환자를 활석분(滑石粉)으로 치료(治療)한 치험 2예.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1;22(4):709-715.
 28. 강우석, 김정한, 박은주, 윤광로. 울금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 한국식품과학회 1998;30(2):266-271.
 29. 남성우, 이복규, 조현국. 특정전자파 조사와 몰약의 도포에 의한 화상 피부의 치유 촉진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03;18(4):263-268.